

囊濕과 小便不利를 주소로 하는 太陰人 환자의 치험 1례

임진희* · 이의주* · 고병희** · 송일병*

Abstract

A Case of Treatment of a Taeumin Patient with Sweaty Scrotum and Dysuria

Lim Jin-ny · Lee Eui-ju* · Koh Byung-hee** · Song Il-byung*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 **Obje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report that a Tae-Yin-In patients with sweaty scrotum and dysuria was treated with 'Chung sim youn ja tang' and then his symptom decreased
2. **Subject:** A male obese patient with sweaty scrotum and dysuria that visit Kirin oriental hospital to be treated for obesity
3. **Method:** The patient was to have a very low calory diet and to exercise for an hour daily and to take a Herb-medicine, 'Chung sim youn ja tang'. Change of his subjective symptom, sweary scrotum and dysuria, was measured by VAS(Visual Analog Scale)
4. **Result:** A Tae-Yin-In patients with sweary scrotum and dysuria was treated with 'Chung sim youn ja tang' and Change of his subjective symptom, sweary scrotum and dysuria, was measured by VAS(Visual Analog Scale) then his symptom decreased.
5. **Conclusion:** 'Chung sim youn ja tang' may have an effect on Treatment of sweary scrotum and dysuria. Further study is needed how to conclud 'disease pattern of constitution' accroding with co-symptom.

1. 서론

‘囊濕’은 음낭의 주변은 음낭의 온도를 체온보다 2-3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汗腺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汗腺의 분비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인은 불확실

하면서(원인이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재발이 잘 되는 경향이 있다. 비교적 유력한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으며 치료는 관리를 위주로 하며 양방의 피부과에서는 습진약을 사용한다.

기존의 동의보감 위주의 한의학에서는 낭습을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신저자: 임진희 주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1-25 201호 전화)011-9992-2968 E-mail)740424jh@hanmail.net

‘腎臟風’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인체의 精血의 부족으로 낭습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동의보감에서는 活血驅風散, 痰藜散, 四生散 등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본원에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 중에 낭습과 小便不利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청심연자탕을 투여하여 치험한 예가 있어 보고하였다.

II. 대상 및 관찰방법

1. 대상

2001년 10월 10일에 본원을 내원한 환자로 20대 초반까지는 70kg초반의 체중을 유지하였으나 20대 후반부터 체중이 증가하여 33세에 85kg 정도로 체중이 증가하여 체중감량을 위하여 본원을 내원한 환자이며, 지속적인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 2001년에 6월 이후로 낭습과 小便不利가 나타나 불편감을 느낀다고 호소한 환자이다.

2. 관찰방법

환자의 체중 관리를 하면서 소변불리와 낭습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인 측정법이 없어 환자가 병원에 내원 시 VAS Scale로 변화를 측정하였다.

3. 증례

1) 이름: 최○○ 나이: 34세 성별: M

2) 주소

① 낭습

② 소변불리(소변색이 진하고 배뇨가 불편하고 배뇨후에 잔뇨감이 있음)

3) 과거력: 別無大病

4) 가족력: 아버지-고혈압

5) 현병력:

34세 비만한 체격(173cm, 85kg) 남환. 평소에 큰 병은 없었으며, 비만 치료를 위해 본원을 내원한

환자로 2001년 6월경 업무상의 과중한 부담이 있는 후에 상기 c/c가 발하였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음.

6) 치료

비만의 관리를 위해 초저열량의 식사와 하루 1시간의 운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Herb-Med는 청심연자탕을 2ch#3로 복용하였다.

4. 체질 감별을 위한 내용

1) 素證

① 대변: 평소에는 1회/1-2일의 배변 습관을 보이며, 대변의 양상은 단단함. 평소 몸이 안 좋아지면 변이 굳어지는 양상이 있으며, 지나친 음주 후에는 변이 묽어지는 양상이 있음.

② 소변: 평소에 소변은 거의 이상이 없으나, 2001년 6월 부터의 과다한 스트레스 이후, 소변이 진해지고 잔뇨감이 있음

③ 땀: 평소에 땀이 많으며, 사우나 후에 개운함을 느낌

④ 소화: 평소에 폭식 습관이 있으며 특히 육식을 매우 좋아함. 소화에는 큰 장애가 없음. 음식을 먹고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킨 적은 거의 없음.

2) 체형 기상

서 있는 자세에서 위엄 있어 보이고, 체형에서는 허리 부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

3) 性情

성격은 예민하고, 일을 결정할 때는 많이 망설이나 한번 결정한 일에는 추진력이 있음.

주변 사람들과 친밀도가 높으며, 아랫 직원을 평가할 때에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한다.

4) 病證

현재의 대변은 비교적 양호하나 약간 단단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소변은 진하고 후증감이 있고, 갈증이 심하며, 설질은 붉고 태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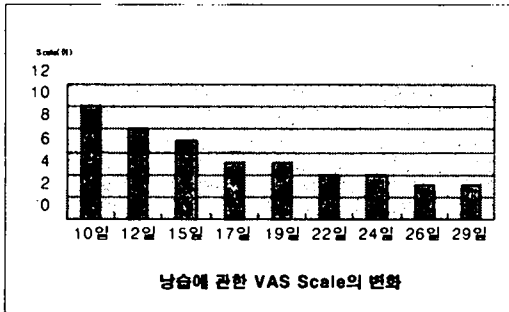
III. 病證의 변화

1. 체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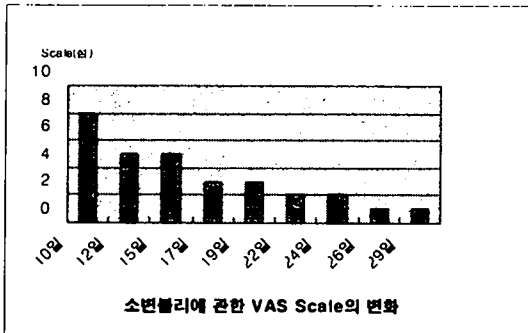
날짜	10.10	10.12	10.15	10.17	10.19	10.22	10.24	10.26	10.29
체중	85	83	81	80	79.5	78	77.6	77.3	77

2. 낭습에 관한 VAS scale



날짜	10.10	10.12	10.15	10.17	10.19	10.22	10.24	10.26	10.29
점수	10	8	7	5	5	4	4	3	3

3. 小便不利에 관한 VAS scale



날짜	10.10	10.12	10.15	10.17	10.19	10.22	10.24	10.26	10.29
점수	8	5	5	3	3	2	2	1	1

IV. 고찰

양의학에서는 '囊濕'이라는 명칭보다는 '음낭습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즉 습진의 분류 중에서 부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기에 발생한 습진을 말하는 것이다. 습진(濕疹)은 병명을 보면 습해서 생기는 병, 즉 습한 곳에 생기는 발진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실은 '습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습해보이는 피부병'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습진에는 급성습진, 아급성 습진, 만성습진의 3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급성습진(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대표적인 예)의 경우, 빨갛고 붓거나 물집이 뾰글뾰글 생겨 마치 물을 끓일 때 거품이 이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습진이라는 말이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아급성 습진이나 만성 습진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을 보이기에 습진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리 좋은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만성 습진의 경우는 습하다기보다는 건조하고, 딱딱하고, 거칠고 거뭇거뭇한 색깔을 띄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습진이라는 병명에 가장 적합한 정의는 '습해보이는 피부 질환'이라기 보다는 '가려운 피부병'이다. 그리고 원인이 불확실하면서(원인이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재발이 잘 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타구니에 발진이 생기면 이를 무조건 습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낭습진과 완선은 구별을 하여야 한다. 음낭습진은 음낭의 주변에는 음낭을 체온보다 2-3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한선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한선의 분비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 음낭습진 또는 낭습이며, 완선은 진균의 감염으로 유발된 것으로 치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즉 진균에 의한 완선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검사로 곰팡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살진균제를 1달 이상동안 사용한다. 대신 음낭습진은 그 원인도 밝혀져 있지 않고 그 유력한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으며 치료는 관리를 위주로 하며 습진약을 사용한다.

기존의 동의보감 위주의 한의학에서는 낭습을 '腎臟風'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인체의 精血의 부족으로 낭습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동의보감에서는 活血驅風散, 痰藜散, 四生散 등의 처방을 제시하

고 있다.

‘四象新編’에서는 ‘莖中痒痛’에 太陰人에게는 清心蓮子湯을, 少陰人에게는 蠶朮寬中湯을, 少陽人에게는 導赤降氣湯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상기 환자에서는 환자의 素證과 病證 그리고 性情, 체형을 비교하여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證으로 진단하고 清心蓮子湯으로 치료하였다. 낭습과 小便不利(배뇨가 원활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는 증상)의 경우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없고, 주로 환자의 자각적인 증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항목이라 VAS(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여 환자의 자각적인 증상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V. 결론

낭습의 경우는 비만한 환자에게 자주 동반되는 증상이며, 비만 환자에서 체중이 감소되면서 낭습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순수히 청심연자탕의 효

과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으나, 낭습이 비만과의 발생에서도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小便不利와 동반된 낭습이 清心蓮子湯의 사용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증례가 있어서 보고하는 것이다. 단 낭습이나 小便不利의 경우 동반증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체질병증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는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VI.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1997
2. 허준:原本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1998
3. 원지상:東醫四象新編
4. <http://unix.kpca.co.kr/~sabu/skin.htm>
5. <http://myhome.netsgo.com/sweety92/보물섬/건강/습진.html>
6. <http://www.hankooki.com:80/whan/200009/w20000919185158615173.htm>